

교환학생 보고서

| | | | | |
|-------|-------------|-----|----------|---------|
| 이름 | 한글 | 양진혁 | 소속(학부/과) | 기계설계공학과 |
| 파견 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 | 파견 국가 | 미국 |
| 파견 대학 | 네바다대학교 | | | |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여태까지 해왔던 금오공대, 그리고 외부 활동들은 대부분 해외학생과 교류를 하는 활동이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에 살아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지원을 하였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 준비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이상한 점이 생기면 직접 상대교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미국의 문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경도 쓰지 않는다. 비자 발급 절차 또한 안내된 대로 따라가면 된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꽤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오는 것이 좋다.

항공권은 인천-라스베이거스 직항보다는 인천-로스앤젤레스-라스베이거스가 훨씬 싸다. 인천-라스베이거스는 대한항공 독점이고, 중국에서도 환승으로 많이 탑승하기 때문에 티켓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편도보다는 왕복으로 티켓을 끊어야 훨씬 저렴하다.

수강신청 또한 학교 측에서 이메일로 안내가 올 것이며, 연구인턴들은 공학 전공과목만 이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4학년 과목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강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기숙사 신청은 나도 실패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지만, 학교 측에서 학번과는 별개로 ACE Account 라는 것을 줄 것이다. 이걸 받자마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것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수로 까먹은 경우이다. 빨리 달라고 재촉하거나 귀찮게 물어야 언제 준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학교 크기는 금오공대에 비해 훨씬 광활하다. 미국에서는 작은 축에 속하나, 경북대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다.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위에 세워진 도시라 여름에 매우 덥다. 심하면 섭씨 45도 까지도 올라가고, 10월 말 까지도 매우 덥다. 선크림은 항상 바르고 다녀야 한다. 비는 아주 가끔 내리며 물은 석회질이 있어 마시는 건 불가능하다.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학교 주변을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은 꽤나 위험하다. 이 학교는 오히려 대학가가 값싼 동네라 흑인, 멕시코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위치해 있어, 되도록 밤에는 다 같이 움직이거나 차가 있는 외국인 친구 또는 우버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도 학교가 위치한 패러다이스 지역, 구시가지가 있는 노스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하면 안전한 도시이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업은 한국 학교와 다를 바 없지만, 과제나 시험 등은 한국 학교보다 난이도가 높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인 과목이 많으며, 질문과 교수와의 소통이 매우 자유롭고 다른 학생들도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는 학기당 2700달러부터 3000달러 이상까지 다양한 방이 있다. 또한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meal plan이라는 것을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도 한 학기에 3000달러 정도 한다.

기숙사는 한국과 달리 학기 시작 후 바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녹장을 부리다가는 나처럼 기숙사를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기숙사 이외에는 네바다대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사설 학생아파트가 있으며, 시설은 이곳이 더 좋다. 하지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할 수 있다.

직접 집이나 아파트를 구해서 살 수도 있는데 미국은 월세계약이 한국처럼 계약서 쓰고 끝이 아닌, 자신의 몇 달 치 소득, 통장 잔고, 미국 내에서의 신용도 등등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생활비는 내 기준 월세와 각종 비용 포함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것은 여행을 제외한 가격이다. 교환학생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한국-미국 비행기 값, 여행을 간 것을 포함하여 총 사용한 비용은 2000만원 정도이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네바다대학교 국제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한다. 국제학생들이 네바다대학교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행사에도 참석 시키려고 하고, 국제팀 학생직원과 다양한 활동도 진행한다.

하지만 국제팀 학생직원을 제외한 다른 활동들에서는 일회성 친분인 경우가 매우 많다. 친구를 얻고 싶으면 매우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생활에 대한 것들을 국제팀에 질문하면 매우 많이 도와준다. 메일 뿐 아니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와준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는 들지 않아서 모르겠다. 듣기로는 태권도동아리 등 한국인이 많은 동아리가 몇몇 있다는데, 미국까지 간 만큼 이런 곳을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한국 교환, 학생 인턴들과 매우 친해진다.

학교의 부대시설 중 이용해본 곳은 학교 헬스장이다. 학교 Gym 건물 크기만 해도 금오공대 창업센터와 비슷하다. 이 모든 공간이 체육을 위한 공간이며, 4학점 이상 수강할 시에는 무료, 3학점 이하는 월 25달러 이다. 국내 헬스장 평균에 비해 매우 수준 높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수영장도 이용 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첫째. 개인주의가 매우 심하다. 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 이는 네바다대학교에서 알게 된 유학생들도 똑같이 느낀다고 한다. 미국인이 아닌 남미, 중국 등에서 온 친구들은 미국인 친구에 비해 사귀기 쉬우니 그들과 친해져 보는걸 추천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매우 오래 산 이민자,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실력도 네이티브 수준이다.

둘째, 라스베가스는 미국 내에서 치안이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학교 주변은 밤에 되도록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노숙자나 흑인들이 괜히 시비를 걸거나 말을 거는 경우가 매우 많다. 네바다대학교에서 알게 된 한국인 유학생 말로는 학교가 위치한 패러다이스 지역 (스트립 제외), 노스라스베이거스 지역은 밤에는 걸어서 다니면 위험하다고 한다. 안전한 지역은 섬머린, 핸더슨 정도인데 매우 멀어 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마약에 대한 유혹이 많다. 대마가 합법이라 학교 바로 앞에도 대마를 파는 가게가 있고, 가끔 흑인들이 drug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학교 주변 동네에는 대마나 약에 취해있는 흑인과 노숙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넷째, 인종차별은 생각보다 없다. 여행객들은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가 엉망이다, 음식을 안 갖다 준다. 또는 일처리를 대충하는 등등의 행위를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다른 백인, 흑인, 히스패닉에게도 똑같이 엉터리로 대한다. 즉, 이들의 일처리가 원래 이런 것이지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다. 물론 가끔 진짜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있다. 한달 정도 지나면 어떤 것이 인종차별인지, 원래 일처리가 엉망인 것인지 감이 잡힌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첫 번째로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다. 내 자신이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보니 매우 외롭고 힘든 경험이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배운 영어와 미국에서 쓰는 영어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한 구어체적 표현들이 매우 많았는데 한국에서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얼마나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한지 절실히 느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UNVLV 도서관 전경.

